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9월은 한국 순교자 성월입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작은 신앙들이 그 분들의 신앙을 본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 ◆ 가톨릭 신문 구독 신청안내

- 구독 신청서를 미제출하신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 (20일) 미사 후 까지 김상욱 안토니오 형제님께 제출 바랍니다.

### ◆ 학생 복사단 모집 안내

- 신청서는 김성하 가브리엘에게 (sunghakim7@gmail.com)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일시: 10월 4일 주일미사 후
- 면접장소: Parish Center 내 본당신부 집무실

### ◆ 신 영세자 첫 고해를 위한 교육 안내

- 대상: 8/16 (일) 세례를 받은 신영세자들
- 일시: 9/19 (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5800 Triplett Square New Albany, OH 43054

### ◆ 신 영세자 첫 고해 안내

- 일시: 9/20 (일) 주일미사 시작 20분 전
- 장소: Holy Family church 내 고해실

### ◆ 첫 영성체 어린이 첫 고해 안내

- 일시: 9/27(일) 주일미사 시작 20분 전
- 장소: Holy Family church 내 고해실

### ◆ 연례회 첫 모임 안내

- 일시: 9/20(일) 주일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 구역 협의회 구역장 모임안내

- 일시: 9/27 (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 꼬미시옹 분기 회합 안내

- 대상: 각 쁘레시디움의 임원
- 일시: 9월 13일 오후 3시
- 장소: Holy Cross Church

### ◆ 친교 준비 및 정리 봉사자

- 9월 13일: 서태수 9월 20일: 이도근
- 9월 친교 후 정리봉사: 정하상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4,23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12.00
교 무 금	\$1,180.00
BAA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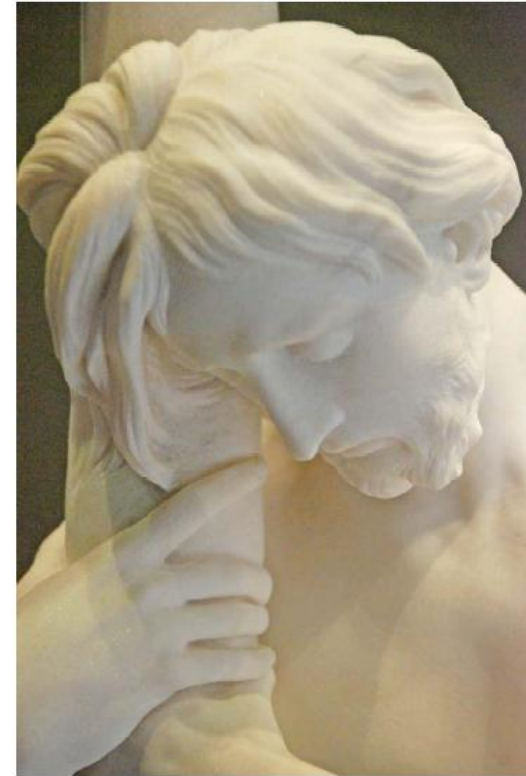
- 교무금: 인영범, 이석찬, 정동완, 오은총, 윤혜경, 안유신, 윤형석, 박귀영, 김도균
- BAA: 익명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24주일 September 13, 2009



< 십자가를 안고 있는 예수님 (부분) >

1733년, 대리석, 루브르박물관, 파리, 프랑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50,5-9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화답송**



나는 주님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 독서** 야고보서 2,14-18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로 못 박혔노라. ◎

**복음** 마르코 8,27-35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170단 2명	24,334단 169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70단 2명	2/22/04 -9/06/09 (288주)

♣ 총누계: 219,322단 12,804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9월 13일	9월 20일
해설자	안유신	서경환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증거자의 모후	십자가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입당: 35      ♪ 봉헌: 220  
 ♪ 성체: 170, 171    ♪ 파견: 46

# 사람의 아들

구요비 읍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청년 시기에 우리가 애독하고 이제는 고전이 된 소설 『사람의 아들』(이문열 작)이 자꾸 떠오름은 어인 일일까요? 주인공 민요섭은 기성 기독교의 현실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 이 사회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자기 나름의 이상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짓 ‘사람의 아들’이라 보고, 외경에 만나오직한 인물인 아하스 페르츠를 창된 ‘사람의 아들’로 제시합니다.

‘만약 그가 빵과 기적과 지상의 권세를 가져왔다면, 그것으로 지금까지의 고통스런 자유는 같음되고, 인간을 헛된 망설임 없이 옛 동산으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293쪽). 그런데 그의 열렬한 추종자인 조동팔이 정의(正義)의 실현을 위해 살인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정당화하는 걸 보며 회의를 느껴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쓸쓸하고 두렵다는 거였소. 웃지 않고 성내지 않는 우리의 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꾸짖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우리의 신 그에게 이제 지쳤다는 거요. ...불합리하더라도 구원과 용서는 끝까지 하늘에 맡겨두어야 했다”(310쪽). 이런 스승 민요섭에게 실망하여 조동팔은 자기 스승을 살해하고 맙니다!

베드로 사도가 속마음으로 고대하는 메시아는 아하스 페르츠가 보여주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즉 광야에서 악마의 집요한 유혹에 시달리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탄아, 물러가라’(마태 4,10)라고 호통치시는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에게 똑같이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33절). 무엇이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부당스러워하고 거부하게 까지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께 보인 반응을 떠올려 볼 때(요한 13,8), 베드로 사도는 봉사 받으러 오지 않고 봉사하려 오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비천(卑賤)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느님을 종의 모습(필리 2,6-8)에서

보지 않으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이 도달한 최고의 신(神)은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움직이듯이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모든 사물을 움직입니다(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서 신은 사랑을 받을 뿐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성서가 계시하는 하느님은 이와는 달리 사랑할 줄 아는 하느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인성(人性) 안에서 하느님의 신성(神性)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곧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하느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이 겪는 고통, 특별히 조롱과 모욕과 무시당하고 버림받기까지 하는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낮은 처지까지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31절).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려면 적어도 이런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느 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살려는 파트너, 동반자, 협력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